

# Dryden의 찬양시의 수사법 :

*Ode to Anne Killigrew* 를 중심으로

宋 洛 憲

## I

왕정복고기의 영문학의 특징을 여러 모로 논할 수 있겠으나 그 중의 하나는 사람을 칭찬하는 시가 쓰여진 마지막의 시대라는 것일 것이다. 18세기 이후에는 Swift의 Stella에 대한 시와 같은 몇 가지 예를 제외한다면 17세기까지와 같은 칭찬시는 자취를 감추고, 오히려 인간을 욕하는 풍자시의 전성기가 전개된다. 그 이유가 문인들이 후견인으로부터 독립하게 됐다는 사회 경제의 변화에 있는지, 인간을 찬미하는 영웅시적 전통이 기울어지고 인간을 낮추어 보는 사조가 대두했기 때문인지 간에, 시인들로서는 구차한 일이 면제된 셈일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칭찬하기가 비판하기보다 몇 갑절 더 힘들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Dryden은 이러한 어려운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 칭찬의 기술의 일면을 그의 몇 편의 시를 통하여 고찰하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Dryden의 칭찬시에서 일반적으로 받은 칭찬의 인상은 칭찬받는 인물의 실제 모습과 그 시에서 그려진 이상화된 모습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Dryden은 아무 인물에 대해서도 철면피하게 과장된 찬사를 퍼붓는 아침군으로 인정되기 쉽다. Samuel Johnson이 이와 같은 인상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When once he has undertaken the task of praise he no longer retains shame in himself, nor supposes it in his patron.... Of this kind of meanness he never seems to decline the practice, or lament the necessity: he considers the great as entitled to encomiastick homage, and brings praise rather as a tribute than a gift, more delighted wiith the fertility of his invention than mortified by the prostitution of his judgment<sup>1)</sup>.

Dryden이 과연 그의 칭찬시의 현납을 창녀짓(prostitution)으로 생각했는지, 또는 이로 말미암아 아무 가책도 느끼지 않았는지는 아무도 Johnson처럼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시대의 대표적 지성인의 한 사람이며 양식과 증용을 지상의 미덕으로 떠받들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의 칭찬시의 제작과정에서 그가 아무 저항감도 느끼지 않았다고는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무엇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저항감을 극복하였으며, 그의 칭찬시에 대한 개념이 어떠한지를 그의 칭찬시의 수사법을 고찰해 보기 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Lives of the Poets*, ed. G.B. Hill (3 vols., Oxford, 1905), I. 그러나 이 귀절은 Arthur W. Hoffman, *John Dryden's Imagery* (Gainesville: University of Florida Press, 1968), p. 2에서 채 인용했음.

Dryden 은 1791년 Abingdon 백작으로부터 그의 부인의 죽음을 기념하는 시를 지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한번도 만나 본 일이 없는 그 부인을 칭송하는 시, *Eleonora* 를 썼다. 이 시를 헌납하는 글에서 그는 이것을 쓰는 동안 시흥에 도취되어 무성한 상상력과 무절제한 기지에 펜을 내 맡겨서 방대하고 다양한 비유를 구사했다고 밝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And on all occasions of praise, if we take the ancients for our patterns, we are bound by prescription to employ the magnificence of words, and the force of figures, to adorn the sublimity of thoughts. Isocrates amongst the Grecian orators, and Cicero, and the younger Pliny, amongst the Romans, have left us their precedents for our security: for I think I need not mention the inimitable Pindar, who stretches on these pinions out of sight, and is carried upward, as it were, into another world<sup>2)</sup>.

즉 Dryden 의 칭찬시의 자유분방한 비유와 과장된 미화는 고전작가의 선례의 재가를 얻고 있으며 고전시대부터의 찬양시의 전통에 확고히 서 있는 것이다<sup>3)</sup>. 이것은 소위 신고전주의 시대의 대표적 작가로서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상상의 날개를 타고 단 세상으로 비상해 가버리거나 과도한 과장법을 구사한다는 것은 신고전주의 문학이 표방하는 규율, 절도, 균형, 중용의 미덕과는 정면 배치된다는 인상을 준다.

영국에 있어서는 신고전주의 정신은 비국교도들(nonconformists)이 저마다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을 받았다는 환상에서 야기된 혼란과 무질서와 방종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것으로써, 종교, 윤리, 철학 분야에서 뿐 아니라 문학에 있어서도 지나친 상상력, 또는 기지(imagination, fancy, wit)의 발동은 마땅히 이성과 판단력으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이것은 Pope의 유명한 시 귀절에 단적으로 요약되어 있다:

Some, to whom Heaven in wit has been profuse,  
Want as much more to turn it to its use;  
For wit and judgment often are at strife,  
Though meant each other's aid, like man and wife.  
'Tis more to guide than spur the Muse's steed,  
Restrain his fury than provoke his speed;  
The winged courser, like a generous horse,  
Shows most true mettle when you check his course<sup>4)</sup>.

상상의 날개가 이성에 의해서 규제되어야 하는 풍토에서는 생명력있는 시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감 때문에 현대의 독자는 이 시대의 시를 경원하게 되는 것이다. Dryden

2) *The Poetical Works of Dryden*, ed. George R. Noyes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50), p. 270. 앞으로 본논문의 각주에서 이책에 대한 언급은 *The Works*로 표시하겠음.

3) James D. Garrison, *Dryden and the Tradition of Panegyric*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5)을 참조.

4) *An Essay on Criticism*, Part I, ll. 80-88. Dryden 이외의 시는 *The Norton Anthology*에서 인용했음.

도 물론 예외는 아니어서 “The Grounds of Criticism in Tragedy”에서 이와 같은 신고전주의적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

No man should pretend to write who cannot temper his fancy with his judgment: Nothing is more dangerous than a hot-mouthed jade without a curb.<sup>5)</sup>

그러나 여러곳에서 그는 이같은 규칙을 무시하는, 또는 반박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다. 예컨대 앞서 언급된 *Eleonora*의 헌납사(dedication)에서 그의 신들린 상태를 자랑하듯이 말하고 있다:

We, who are priests of Apollo, have not the inspiration when we please; but must wait till the god comes rushing on us, and invades us with a fury which we are not able to resist: which gives us double strength while the fit continues, and leaves us languishing and spent, at its departure. Let me not seem to boast, my Lord, for I have really felt it on this occasion, and prophesied beyond my natural power. Let me add, and hope to be believed, that the excellency of the subject contributed much to the happiness of the execution; and that the weight of thirty years was taken off me, while I was writing. I swam with the tide, and the water under me was buoyant. The reader will easily observe, that I was transported by the multitude and variety of my similitudes; which are generally the product of a luxuriant fancy, and the wantonness of wit<sup>6)</sup>.

이 말은 물론 이 시를 의뢰한 Abingdon 경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쓴 것이 명백하지만 적어도 신고전주의 시인이 신들린 상태(enthusiasm)에 빠져서 과도한 비유와 표현을 쓰는 것이 큰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Dryden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시 전체는 영웅시체로 쓰여있지만, 그 생각이나 표현에 있어서 Pindar의 시와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만한 에누리가 필요하다”고 이 칭찬시에 있어서의 화려한 상상과 방종스러운 기지가 허용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전의 선례를 제시하는 것이지만, 이 헌사의 의도로 미뤄 보건데, 칭찬시에 있어서는 독자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표현도 용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이와같은 주장을 칭찬사에서 뿐 아니라 만 종류의 시, 특히 영웅시(heroic poetry)에 대해서도 하고 있다<sup>7)</sup>. 이러한 견해를 가장 강력히 천명한 것은 “Apology for Heroic Poetry”에서인데 여기서 그는 주장하기를 영웅시의 목적은 가르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며, 이것을 위해서는 특히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는 무리한 비유와 지나친 과장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하고, 그러한 선례를 Virgil, Horace 및 Cowley 등에서 들고, 이렇게 오래 동안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 자체가 천성

5) *John Dryden: Selected Criticism*, ed. James Kinsley and George Parfitt (Oxford: Clarendon Press, 1970), p. 173. 앞으로 이 책에 대한 언급은 *Selected Criticism*으로 표시하겠음.

6) *The Works*, pp. 269-70.

7) “An Account of the Ensuing Poem (*Annus Mirabilis*)”에서 “...the same images serve equally for the epic poesy, and for the historic and panegyric...”라고 말하고 있음. (*The Works*, p. 26)

(nature)의 일부인 증거로써, 이 천성을 모방하는 것은 조금도 지나친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I will presume for once to tell them that the boldest strokes of poetry, when they are managed artfully, are those which most delight the reader.

Virgil and Horace, the severest writers of the severest age, have made frequent use of the hardest metaphors, and of the strongest hyperboles: and in this case the best authority is the best argument. For generally to have pleased, and through all ages, must bear the force of universal tradition.... those things which delight all ages must have been an imitation of nature....

You are not obliged, as in history, to a literal belief of what the poet says; but you are pleased with the image, without being cozened by the fiction....

Imaging is, in itself, the very height and life of poetry. 'Tis, as Longinus describes it, a discourse which, by a kind of enthusiasm, or extraordinary emotion of the soul, makes it seem to us that we behold those things which the poet paints, so as to be pleased with them, and to admire them<sup>8)</sup>.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첫째로 Dryden은 시의 즐거움(pleasure, delight)을 주는 기능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것을 위해서는 “the hardest metaphor”와 “the strangest hyperbole”의 사용도 무방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과, 또 하나는 “imaging”, 즉 상상은 시의 생명이며 일종의 신들림(enthusiasm)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당시 각종 비국교도들의 “신들림”에 대한 지성인들의 멸시와, Hobbes, Locke, 및 왕립협회(Royal Society)가 천명한 상상력에 대한 경시와 반감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거리낌없이 했다면 Dryden은 당시 사조를 몰랐거나, 그것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서 있었거나, 경우에 따라 아무렇게나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하는 기회주의자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무식하지도 않았고, 또한 파렴치하지도 않았다. *Religio Laici*의 서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순전히 교훈을 위한 시의 표현법은 위에서 말한 바와는 다르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The expression of a poem design'd purely for instruction ought to be plain and yet majestic; for here the poet is presum'd to be a kind of lawgiver, and those three qualities which I have nam'd are proper to the legislative style. The florid, elevated, and figurative way is for the passions; for love and hatred, fear and anger, are begotten in the soul by shewing their objects out of their true proportion, either greater than the life, or less; but instruction is to be given by shewing them what they naturally are. A man is to be cheated into passion, but to be reason'd into truth<sup>9)</sup>.

Dryden의 이 말은, 신고전주의 시에 있어서는 감정이나 정서는 억제되고 멸시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편견에 대한 반증을 이루고 있다. 그 어느 시대에 있어서도 시가 인간의 감정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더구나 신고전주의 정신의 진수는 자

8) *Selected Criticism*, pp. 136-39. 이 평론의 완전한 제목은 “The Author's Apology for Heroic Poetry and Poetic License”임.

9) *The Works*, p. 162.

연, 즉 인간의 본성을 모방하고 따르는 것이고, 이 인간의 본성에서 감정을 빼버린다면 남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18세기 영시에 관해서 이점에 있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신고전주의에서는 이성과 양식이 강조되고 상상적인 것, 감정적인 것이 멸시되었고 특히 형식이 존중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서정시는 꽃필 수 있었다.”라는 식의 설명은 18세기의 인간이 인정과 감정에 메마른 괴물인 것 같은 인상을 주기 쉽고, 이 시대에도 만 시대에 못지 않는 사랑의 노래와 비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시키기 쉽다. 가장 대표적인 이성의 옹호시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Pope의 마음 속에서도 뜨거운 피가 끓고 있었음을 보기 위하여, 그의 「비평론」이나 「인간론」 뿐 아니라 *Eloisa to Abelard* 와 *Elegy to the Memory of an Unfortunate Lady* 도 반드시 감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8세기적인 서정시가 낭만주의 이후의 서정시와 꼭 같다는 것을 아니다. Wordsworth 이후의 시는 「강력한 감정의 자생적 넘쳐흐름(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feelings)」으로 인식되어, 시인의 사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쏟아 내는 것이 서정시 뿐 아니라 모든 시의 속성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고전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직접 노골적으로 개인의 감정을 토로한다는 것은 유치하고 예절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시대의 정서는 일단 순화 과정을 걸쳐서 간접적으로 표현되었고, 이 순화과정에서 지나치게 개성적인 것, 특이한 것은 여과되고 인간성 일반에게 공통적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형태로 가다듬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이 흔히 솔직하지 못하고 내용보다 형식에 치우치는 것으로 비난받는 것이다.

감정 표현에 있어서의 낭만주의적인 태도와 신고전주의적인 태도는, 곧 인간성의 양면성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 즉 인간성의 심층에는 무한한 자유를 갈구하는 충동이 들끓고 있고 그 표층에서는 이것을 적절히 조절하여 바깥 세상에 적응하도록 하는 자제력이 작용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인간은 무한한 자유를 누리려하지만 대자연의 규칙과 인간 사회의 규율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인간의 욕구는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세상을 바라본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상상적으로 세상을 자기화시켜 현실에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초현실을 그려 낸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 현실과 충돌하여 파멸하거나 미치광이가 되고 만다. 그래서 이것을 통제·조절해 주는 정신 작용이 발동해야 한다. 이 두가지 대조적인 정신 작용은 보통 감정과 이성, 꿈과 현실, id와 superego, 광기와 양식, 젊음의 열기와 노년의 원숙 등의 개념으로 의식되고, 예술에서는 낭만주의와 고전주의적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두 경향에 관하여 그 어느 쪽이 더 가치있고 덜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어느 시대에는 하나의 경향만이 존재하다가 시대의 바뀔과 더불어 또 하나의 경향과 교체되어 소멸해 없어진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양자는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항상 공존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 한 쪽이 또한 쪽보다 우세해졌다가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전할 따름이다. 그리고 그 우세함도 그다지 큰 것이 아니어서 거의 균형상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양자는 서로 보완적이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감정과 정열이 분출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방종, 야만, 무질서를 가져온다.

이것에 질서를 부여하고 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거니와, 고전문학에서는 장르, 또는 형식이 이 구실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슬픔은 epitaph나 elegy 같은 형식으로, 분노는 satire

로, 사랑은 sonnet 나 song 등의 형식으로 발표된다. 이것이 고전주의 문학에서 장르가 중요시되는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형식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거기에 담긴 감정이나 정서를 일반화, 또는 극화(dramatize) 시킨다는 것이다. 즉 이 형식에 담겨진 감정은 그 시인 자신의 사사로운 특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유물로 화하고, 시인 자신의 처지에서가 아니라 극중 인물과 같은 가면을 쓰고 그 인물의 감정을 대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모든 시대의 모든 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낭만주의 이전에 있어서 더 뚜렷했었다. Shakespeare의 sonnet에 나오는 “나”와 Shakespeare 간의 간격은, 낭만시인의 시에 나오는 “나”와 그 시인과의 간격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따라서 신고전주의 시인, 예컨대 Dryden을 읽을 때는 시인의 감정이 너무 인위적이라고 비난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는 다양한 가면(persona)를 쓸 자유가 있었고, 이 자유와 앞서 고찰한 시적 상상력의 자유가 Dryden의 찬양시의 기틀을 이루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 II

궁중시인(court poet), 또는 계관시인(poet laureate)로서, 그리고 극작가로서 눈부신 활약을 한 Dryden은 자유로이 가면을 쓸 수 있었으나 그의 찬양시에 담은 감정이 항상 인위적이고 허구인 것은 아니다.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나타내려 했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소재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최초의, 그리고 가장 서투른 찬양·애도시, *Upon the Death of the Lord Hastings*에서도 재간과 덕망있는 사람은 단명하고, 무가치한 사람들만 장수하는 세상을 개탄하는 귀절은 진실스러우며 감동적이다:

Must drunkards, lechers, spent with sinning, live  
 With such helps as broths, possets, physic give?  
 None live, but such as should die? shall we meet  
 With none but ghostly fathers in the street?  
 Grief makes me rail: sorrow will force its way;  
 And show'rs of tears tempestuous sighs best lay. (85-90)<sup>10)</sup>

누구든지 젊어서 죽는다는 것은 애석한 것이며 더구나 재주있는 사람의 요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애도의 주제로 되어있다. Dryden은 이 “Whom the gods love die young.”이라는 소재(motif)를 이 시의 서두와 종말부에서 반복적으로 배치해서 감정의 진실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중간에 나열된 지나치게 과장된 칭찬의 비유가 약간 자연미를 얻게 된다.

이 재자박명(才子薄命)의 주제는 *To the Memory of Oldham*에서 되풀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주제가 그의 감정의 진실화의 수단으로서 보다 Oldham의 요절에 대한 그의 진정한 슬픔을 담고 있다. 아마도 그의 모든 찬양·애도시 중에서도 가장 가면이 없는 사

10) 본논문에 인용된 Dryden의 모든 시는 *The Works*에서 인용했음. 인용후 괄호 속에 행수를 표시했음.

적인 정서를 나타낸 시일것이다. 이 시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개의 애도시의 마지막에 있기 마련인 죽은 영혼에 대한 위안의 말이 없다는 것이다<sup>11)</sup>. 이 시를 다 읽고 나서 느끼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위안을 첨가하기에는 Dryden의 슬픔이 너무 깊었다는 것이고, 또 그런 위안이 없기 때문에 더욱 강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Once more, hail and farewell; farewell, thou young,  
But ah too short, Marcellus of our tongue;  
Thy brows with ivy, and with laurels bound;  
But fate and gloomy night encompass thee around. (22-25)

Dryden의 이 젊은이에 대한 칭찬의 동기는 그의 조숙한 시재(詩才)이지만, 이 시의 도입부는 그 시재를 아낌없이 인정한 Dryden의 너그러운 인간미가 Oldham에 대한 일체감과 애정으로까지 고양된 것을 보여 준다:

Farewell, too little, and too lately known,  
Whom I began to think and call my own:  
For sure our souls were near allied and thine  
Cast in the same poetic mold with mine.  
One common note on either lyre did strike,  
And knaves and fools we both abhorr'd alike. (1-6)

그러나 이 시에 있어서 이보다 더 현저한 특징은 Hastings에 대한 것과는 달리 Oldham의 업적을 허무맹랑하게 과장하지 않고, 오히려 조숙(早熟)에 따르는 약점도 거론하고 그것을 칭찬으로 돌렸다는 점이다:

O early ripe; to thy abundant store  
What could advancing age have added more?  
It might (what nature never gives the young)  
Have taught the numbers of thy native tongue.  
But satire needs not those, and wit will shine  
Thro' the harsh cadence of a rugged line:  
A noble error, and but seldom made,  
When poets are by too much force betray'd. (11-18)

이와같이 약점이나 결점을 오히려 미덕으로 만들고 칭찬한 예는 *Absalom and Achitophel*

11) 가령 Milton의 *Lycidas*에서는 다음처럼 위안하고 있다:

So Lycidas sunk low, but mounted high,  
Through the dear might of him that walked the waves,  
.....

There entertain him all the saints above,  
In solemn troops and sweet societies  
That sing, and singing in their glory move,  
And wipe the tears forever from his eyes. (172-3, 178-81)

의 시작부분에서 David의 호색함을 하나님의 창조의 풍성함으로 전환시킨 절묘한 솜씨에서도 볼 수 있다<sup>12)</sup>:

Then Israel's monarch after Heaven's own heart,  
His vigorous warmth did variously impart  
To wives and slaves: and, wide as his command,  
Scatter'd his Maker's image thro' the land. (7-10).

이와같은 재간은 물론 Dryden의 뛰어난 시적 재능의 덕분이지만 그 밑에는 장점이 잘 안 보이는 곳에서도 장점을 찾아내고 단점도 오히려 가치있게 보려고 하는 Dryden의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씨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Dryden의 이와 같은 노력은 위에서 든 예에서 훌륭하게 성취되어 있거니와, Oldham에 관해서 사용한, "A noble error," 또는 Absalom을 탄생케한 David의 "diviner lust"라는 역설적인 수사법(oxymoron)이 그것의 상징적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시적 문맥 속에서 "divine lust"라는 말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역인 "lusty divinity"라는 역설도 가능하다고 느껴지게 된다. 즉 David 왕의 호색(lust)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적(divine)이라면, 신(divinity)은 창조라는 목적의 수단으로서 호색적(lusty)일 수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즉 "Lust is divine."인 동시에, "Divinity is lusty."라는 인상을 준다. 이것이 Dryden의 칭찬시 작법의 하나의 핵심적 기술로 보인다. 이 기술에 의해서 *Absalom and Achitophel*에서는 David 왕은 호색하나 신적 존재로 만들어지고, Oldham은 결함(error)이 있으나 거룩한(noble) 인상을 주게 된다. *Ode to Anne Killigrew*에 있어서도 Anne의 시의 미숙함을 다음과 같이 칭찬하고 있다:

Art she had none, yet wanted none;  
For nature did that want supply:  
So rich in treasures of her own,  
She might our boasted stores defy:  
Such noble vigor did her verse adorn  
That it seem'd borrow'd, where 'twas only born. (71-76)

여기에서도 Anne의 시가 예술성, 즉 기교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신고전주의적 예술관에 있어서는 예술은 고전의 본을 거울 삼아 기술을 갈고 닦은 결과로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Dryden이 여기에서 칭찬하고 있는, 손질이 안 간 예술(artless art), 또는 자연스런 예술(natural art)라는 역설적인 개념은 농담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위의 제 4연(stanza)에서, Anne의 순결성을 드높이고, "그녀의 순진성은 어린이 보다 더 하다"는 찬양에 동감한다면, 그녀의 순진한, 천연적 예술에 대한 역설적 칭

12) Earl Miner, "Some Characteristics of Dryden's Use of Metaphor,"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Summer 1962), rpt. in Bernard N. Schilling, ed., *Dryden: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Twentieth Century View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3), pp. 118-120을 참조. 앞으로 Dryden에 관한 이 논평집은 Twentieth Century Views on Dryden으로 약칭함.



찬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도 속성의 환치(換置)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일층 더 자연스러워서, Dryden 이 Anne 의 “natural art”를 칭찬하고 있는 것인지, “artful, or artistic nature”를 찬양하고 있는 것인지 모호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에 상술될 것이다.

이와같은 칭찬의 양면성, 또는 모호성(ambiguity)이 Dryden 의 찬양시의 특징적 수사법으로 보이며,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Dryden 의 특징적인 비유법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가령 Alan Roper 는 Dryden 의 비유법은 analogy 라고 주장하면서, Dryden 의 analogy 에 있어서는 비유되는 것의 양 편, 즉 tenor 와 vehicle<sup>13)</sup>이 서로 자리 바꿈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Dryden 은 공적 양식(public mode)의 시인으로서 그 시대의 공동적으로 수용된 생각을 재확인하거나 재창조해야 했는데, 이 재창조에 있어서 그에 특징적인 비유법을 사용한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Recreation fully exploits the potential similarity of apparent dissimilars by placing the particular value to be affirmed either in the tenor or the vehicle of a comparison. The poem, that is, may talk about the nature of the constitution and illustrate it by reference to a building, or it may talk about a building and illustrate it by reference to the constitution. If it is true that a creative use of comparison effects an interchange of syntactic roles between the two halves, so that tenor illustrates vehicle in addition to vehicle illustrating tenor, then it follows that in the poetry of the public mode a creative comparison will confer the status of public value upon the superficially nonpublic element, whether it be found in the tenor or the vehicle: the building as well as the constitution will be of public significance. The building will not simply illustrate some aspect of the constitution, it will be interchangeable with the constitution; metaphorically it will be the constitution<sup>14)</sup>.

이와같이 본의와 전달체가 서로 자리를 바꿔 본의가 전달체로, 전달체는 본의로 되면, 때로는 그 시가 어느 쪽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있다. 가령 Charles 2 세가 왕위에 복귀한 무렵에 Dryden 이 Robert Howard 의 시를 칭찬한 시 중에 다음과 같은 귀절이 있다 :

Of moral knowledge Poesy was queen,  
And still she might, had wanton wits not been;  
Who, like ill guardians, liv'd themselves at large,  
And, not content with that, debauch'd their charge.  
Like some brave captain, your successful pen  
Restores the exil'd to her crown again;  
And gives us hope, that having seen days

13) 이 논문에서는 앞으로 “tenor” 와 “vehicle” 대신에 “본의(本意)”와 “전달체(傳達體)”라는 역어를 사용하기로 함.

14) Alan Roper, “Analogies for Poetry,” *Dryden's Poetic Kingdom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65), rpt. in Robert McHenry and David G Lougee, ed., *Critics on Dryden*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73), p. 46.

When nothing flourish'd but fanatic bays,  
 All will at length in this opinion rest:  
 "A sober prince's government is best." (45-54)<sup>15)</sup>

여기에서 Howard의 문필은 졸렬한 시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문학을 회복시키고 그 원래의 고귀한 위치로 복귀시켰다고 칭찬하고 있다. 즉, 문학의 상황을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의 비유로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달체인 정치적인 상황이 본의인 문학보다 오히려 그 의미의 비중이 더 무겁게 느껴져서, "A sober prince's government is best."라는 말은 문학적 비유인지 정치 상황에 대한 논평인지 분간하기 힘들게 되어 있다. 이 같은 사정은 *To My Honor'd Friend, Dr. Charleton*에서 일층 더해지고 있다. 이 시는 Charleton이 Stonehenge의 정체에 관한 학설에 있어서, 그것이 로마인들이 만든 신전이라는 Inigo Jones의 학설에 반론을 펴서, 사실은 고대 덴마크인들이 왕을 선출하고 즉위식을 행했던 왕좌라고 주장하여서, 잘못됐던 학설을 바로잡았다는 것을 칭송하려는 의도로 시작하고 있으나, 시 전체를 읽고 난 후에는 Charleton의 학문적 공적을 드높이기 보다는 왕위에 복귀한 Charles 2세에 대한 찬양과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 이 효과의 전환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은 역시 본의와 전달체의 전환인 것이다. 이 시의 도입부에서는 학문의 상황이 정치적 상황의 이미지로 서술되기 시작한다:

The longest tyranny that ever sway'd  
 Was that wherein our ancestors betray'd  
 Their free-born reason to the Stagerite,  
 And made his torch their universal light.  
 .....

Columbus was the first that shook his throne,  
 And found a temp'rate in a torrid zone: (1-4, 9-10)

여기에서 Aristotle에 의한 오랜 학문의 지배는 곧 Cromwell에 의한 영국민에 대한 독재를 연상시키며, 그들의 조상이 저바린 "free-born reason"은 왕정 공백기의 영국인이 Cromwell에 내맡겼던 정치적 자유와 유사하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이 시는 이어 여러 영국의 학자들의 공적을 열거하면서 그것이 곧 영국의 국력임을 시사하다가<sup>16)</sup> 끝으로 Charleton의 공적은 학문적인 오류를 교정하여 진실을 회복시킨 것인데, 이것을 Charles의 왕위복귀와 일치시킴으로서 시를 끝내고 있다:

Thro' you, the Danes, their short dominion lost,  
 A longer conquest than the Saxons boast.  
 Stonehenge, once thought a temple, you have found

15) 이 시의 완전한 제목은 *To My Honor'd Friend Sir Robert Howard, On His Excellent Poems* 임. 이 시와 *To My Honor'd Friend, Dr. Charleton*에 관해서는 *Twentieth Century Views on Dryden*에 수록된 Earl Wasserman의 "Dryden: Epistle to Charleton"에서 많은 시사를 받았음.

16) 26행, "Or British fleets the boundless ocean awe;"이 그 예임.

A throne, where kings, our earthly gods, were crown'd;  
 Where by their wond'ring subjects they were seen,  
 Joy'd with their stature, and their princely mien.  
 Our sovereign here above the rest might stand,  
 And here be chose again to rule the land.

These ruins shelter'd once his sacred head,  
 Then when from Wor'ster's fatal field he fled;  
 Watch'd by the genius of this royal place,  
 And mighty visions of the Danish race.  
 His refuge then was for a temple shown;  
 But, he restore'd, 't is now become a throne. (45-58)

Earl Wasserman은 이 종말부에서 Dryden이 그의 왕위 계승제도에 관한 견해와 희망을 시사하고 있다는 정교한 학설을 제시하기도 했거니와, 그 주장의 진부는 어쨌든 간에 전달체로 시작했던 정치적 이미지가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본의로 변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Earl Miner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Mac Flecknoe*에서 지적했다. 그에 의하면 Dryden의 비유법의 특징은 그 효과가 단편적이고 국부적인 것이 아니라 한편의 시 전체에 파급되는 기능을 지녀서, 이것을 “controlling metaphor”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한다. *Mac Flecknoe*에서는 군주정체(monarchy)가 문학의 비유로 사용되고 있는 동시에 종교도 역시 비유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삼자는 각기 서로 서로의 비유의 구실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There are, then, three elements in the poem: monarchy, religion, and art (to take literature into its broader class). Each element grows from innumerable details, images, and specific metaphors into a controlling metaphor; each represents a major subject in the poem. The metaphor of monarchy is most important to the structure of the poem, whose situation is a coronation. Art—architecture, music, and especially literature—is most important as the subject of the poem and touches Shadwell where it most hurts—his musical and literary pretentions. Religion, both classical and Christian, is most important in controlling the tone. But the really significant thing is that all three are constantly relevant in the poem and to each other; it is indeed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three metaphors function as metaphors for each other as well as for other tenors.<sup>17)</sup>

### III

이상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Dryden의 비유의 특징, 즉 본의와 전달체의 상호 대치, 또는 그 구별을 애매하게 하는 수사법은 각 시마다 그 필요성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이 다를 것이지만 Anne Killigrew에 대한 송가에서 가장 그 진수가 발휘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는 그런 종류의 찬양시로서는 거의 완벽한 것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시를 쓸 때 Dryden이 직면한 난점은 짐작이 갈 수 있다. Anne Killigrew는 1660년에 탄생했고 Duke of York (Charles 2세의 동생, 후의 James 2세)의 전속 목사인 Henry Killigrew의

17) Earl Miner, p. 122.

딸이었고, Duchess of York의 시녀였는데, 시와 그림의 재간이 있었으나 25세에 천연두에 걸려 사망한 처녀였다. Dryden은 아마도 그녀를 직접 알지 못했으나 그녀의 사후 그의 시집을 출판할 때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그것을 빛내 줄 시를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것이다. Anne의 시와 그림이 실제로는 Dryden이 한 것 처럼 극찬 받을 만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Dryden의 문제는 Anne을 지극히 찬양하되 속없고 형식적인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대개의 학자는 Dryden이 이 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Anne Killigrew의 죽음이나 그녀의 재능이 아니라 전혀 딴 얘기를 하기 위한 계기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가령 E.M.W. Tillyard는 다음같이 말한다:

Dryden does indeed tell us things about Anne Killigrew: that she was virtuous and gifted; that she wrote verse and painted landscapes and royal portraits; and that she died of smallpox. But the two hundred lines spent in saying this are, as information, nearly all padding,.... Dryden's subject, Anne Killigrew's premature death, has no close connection with the things he was really saying. He must have known that her poems and pictures were the indifferent stuff which posterity has decided them to be. Nevertheless he used the conventional grief and extravagant adulation to convey certain strongly held opinions and feelings.<sup>18)</sup>

또 Hoffman도 "Dryden's *Ode To Anne Killigrew*, more than praise of a woman, is praise of a type of incarnation."<sup>19)</sup>이라고, 한 구체적인 개인에 대한 송가라기보다도 어떤 유형, 또는 이념에 대한 찬양이라고 보고 있다. H.D. Hope는 위의 Tillyard의 말을 반박하고 Anne 자신이 칭찬의 대상이라고 하기는 했으나, 그 칭찬의 이유는 Anne의 예술의 우수함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미약하나마 예술의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What he contrives to do is to make us feel that she belongs to that world in which genius rules and that this is her gift, her distinction: *that she shared in it*. What is important is that art is important; and because Anne Killigrew had her modest share in its world she is entitled to a share in its praise.<sup>20)</sup>

그러나 이런 말은 Hoffman의 그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즉 Anne 자신에 대한 칭찬이라기보다 그녀가 속하고 있는 것, 즉 예술이 칭찬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송가는 역시 Anne 자신의 예술에 대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Dryden에게는 거리낌없이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와 기술이 있었을 것이다. 그 중의 하나는 A.D. Hope도 지적했듯이 Anne이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고인이라는 점이다. 고인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있는 사람에 대한 것 보다 한층 더 드높힐 수 있다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예절(decorum)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해 준 기술, 또는 수사법은 위에

18) E.M.W. Tillyard, "Ode on Anne Killigrew." From *Five Poems* (London: Chatto & Windus, 1948). rpt. in *Twentieth Century Views on Dryden*, p. 136 & p. 138.

19) Arthur W. Hoffman, *John Dryden's Imagery* (Gainesville: University of Florida Press, 1968), p. 92.

20) A.D. Hope, "Anne Killigrew, or the Art of Modulating," *The Cave and the Spring* (Adelaide: Rigby Ltd., 1965), rpt. in Bruce King, ed., *Dryden's Mind and Art* (Edinburgh: Oliver and Boyd, 1969), p. 103.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의와 전달체가 서로 자리 바꿈을 할 수 있고 그 구분이 모호해지는 비유법이라 할 수 있다.

Dryden 이 Anne 의 어떤 면을 칭찬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이 송가의 온전한 제목, 즉, *To the Pious Memory of the Accomplish'd Young Lady, Mrs. Anne Killigrew, Excellent in the Two Sister-Arts of Poesy and Painting, An Ode* 가 암시를 주고 있다. 이 제목은 분명히 다재 다능한 Anne, 그녀의 예능적 탁월함을 칭송하려는 의도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제목에 잇달아 전개되는 시 안에는 Anne 의 시나 그림의 우월성에 대한 칭찬은 의외로 미약하고 그보다 그녀의 처녀로서의 순결성, 또는 도덕적, 종교적 순결성이 찬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Anne 의 시나 그림은 실체는 이와같은 송가로 찬양할 만한 것은 못되기 때문에 Dryden 은 Anne 의 예술, 더 나아가서 예술 전반을 종교에 비유하여<sup>21)</sup>, Anne 의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의 강점, 도덕적 순결·순진성을 마음껏 찬양함으로써, 그녀의 예술을 찬양하는 느낌과 인상을 주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한 처녀의 평범한 예술적 업적보다도 그녀의 순결성을 극찬하는 편이 훨씬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을 것이다. 즉, 이 시에서는 예술이 주제, 즉 본의인데, 그 전달체인 종교적 색채가 매우 강해져서 그 구분이 희미해지거나 그 자리가 바뀌어지는 수사법이 교묘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송가가 시작하는 제 1 연(stanza)에서 Anne 은 축복받은 자로서 승리의 종려나무를 들고 하늘에 승진된 처녀 딸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

Thou youngest virgin-daughter of the skies,  
Made in the last promotion of the blest,  
Whose palms, new pluck'd from paradise,  
In spreading branches more sublimely rise,  
Rich with immortal green above the rest; (1-5)

이렇게 천국에 승천하는 사람은 생전에 신앙심이 강하고 죄짓지 않는 선남 선녀일 것이다. 그러나 Anne 이 승천한 이유는 보통 종교적 개념과는 약간 다르다는 것이 제 1 연의 마지막 부분에 암시되어 있다 :

Hear then a mortal Muse thy praise rehearse,  
In no ignoble verse;  
But such as thy own voice did practice here,  
When thy first fruits of poesy were giv'n  
To make thyself a welcome inmate there,  
While yet a young probationer,  
And candidate of heav'n. (16-22)

여기에서 Anne 이 하늘 나라(heaven)의 한 사람으로 맞아 들여지는 여유는 분명히 “시의 열매(fruits of poesy)” 때문이라고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이 하늘 나라는 시와 시인의 천

21) 앞서 인용한 *Eleonora* 에 대한 헌사에서 시인을 “priests of Apollo”라고 부른 것도 고전적인 종교를 예술에 대한 비유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음.



죽이고 종교적 이미지는 시에 대한 비유적 표현 수단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 천국은 성도들이 가는 천국이 아니고 시신(muse)들이 가는 곳이고 “a mortal Muse”인 Dryden 자신도 갈 것을 소망하는 곳이다. 하늘의 가장 어린 처녀 딸(youngest virgin-daughter of the skies)인 Anne은 지금은 완전한 불사의(immortal) 시신이 된 것이다. 그러나 시와 종교의 관계는 비유적인 것 이상이라는 암시가 또한 보이기 시작한다. 그것은 “no ignoble verse”라는 표현의 뜻은 시의 예술적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도덕적인 고결함을 뜻하는 것이고, Anne과 Dryden의 시는 그 점에 있어서 상통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시와 종교는 시의 도덕적 고결성에 의해서 결합되는 것이다. 시를 쓰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고결한 시를 쓰는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송가의 종교는 비유이기도하고 동시에 종교 그 자체이기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종교는 그 비유적인 성격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는 기독교적, 또는 성경적인(biblical) 종교 같기는 하나, 다분히 고전적(classical)인, 또 이교적(pagan)인 요소에 의해서 수정된 기독교로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종교의 고전적인 요소 및 성격이 곧 그것의 예술적인 요소 및 성격으로 보이는 것이다. 즉 고전적인 종교라는 전달체 안에서 예술의 본의를 나타내고 종교의 비유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고전적인 요소는 “a mortal Muse”라는 말로 뚜렷해지기 시작하지만 그 앞에서도, Anne이 지금쯤 하늘의 어느 별에 거처하고 있는지를 물어 보는 부분(5-12행)도 Virgil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sup>22)</sup> 고전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고전적·예술적 요소는 제 2연에서 매우 뚜렷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이 연은 Anne이 매우 예술적인 혈통을 이어 받았다고, 그녀의 가문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Anne의 영혼의 경력을 거슬러 올라 감으로써 그녀의 예술적 소질을 칭송하고 있다:

If by traduction came thy mind,  
Our wonder is the less to find  
A soul so charming from a stock so good;  
Thy father was transfus'd into thy blood:  
So wert thou born into the tuneful strain,  
(An early, rich, and inexhaustible vein.)  
But if thy preexistig soul  
Was form'd, at first, with myriads more,  
It did thro' all the mighty poets roll,  
Who Greek or Latin laurels wore,  
And was that Sappho last, which once it was before. (23-33)

영혼이 되풀이 하여 여러 육신 속에 재생한다는 영혼 윤회 사상은 비기독교적인 것이다. 이것은 불교를 비롯한 여러 동방 종교의 사상이며 Plato에 의해서 명문화된 고전적인 사상이다. 따라서 Anne의 전생은 모두 고전적인 시인들이다. Anne의 영혼이 현재의 육신을 떠나면 저 세상에 도도히 흐르는 예술의 정신에 복귀하여 Sappho를 비롯한 여러 계관 시

22) Tillyard, p. 144.

인들의 영혼과 하나가 되었다가 또다시 현재의 육신으로 되돌아 올 수 있으나 그녀의 영혼은 더 이상 정화될 필요가 없으므로, 이제는 또 다시 육신을 입지 말고 하늘의 찬양대의 일원으로 돌아가라고 부탁하는 것이다<sup>23)</sup>.

If so, then cease thy flight, *O heav'n-born mind!*  
 Thou hast no dross to purge from thy rich ore;  
 Nor can thy soul a fairer mansion find,  
 'Than was the beauteous frame she left behind:  
 Return, to fill or mend the choir of thy celestial kind. (34-38)

이 연에서 이 승가의 종교는 예술에 대한 비유라는 것과 이 종교의 고전적 요소가 예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매우 뚜렷해 지고 있다.

다음 제 3 연에서는 Anne 이 탄생할 때의 상황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는 점성술과 천구의 화음과 같은 고전적인 이미지가 동원되어 있으나 기본 개념은 확실히 기독교적이다. 왜냐하면 Anne 의 탄생을 칠현수금(lyre)의 음악으로 축하하는 천사들의 이미지는 예수가 탄생할 때 하나님을 찬미하는 천사들(누가복음, 1:13-14)을 너무 강력히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Thy brother-angels at thy birth  
 Strung each his lyre, and tun'd it high,  
 That all the people of the sky  
 Might know a poetess was born on earth.  
 And then, if ever, mortal ears  
 Had heard the music of the spheres! (44-49)

이 친구들의 음악 소리는 인간이 타락한 이래, 그리스도의 탄생 때를 제외하고는 인간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고 생각되었다<sup>24)</sup>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서 Anne 은 분명히 인간의 구세주인 예수와 동일시되어 있으며 다음 제 4 연에서의 Anne 의 이미지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진 것이다.

제 4 연은 기독교적 하나님(God)에 향하여 현재의 예술의 타락을 개탄하고 후회하는 감탄문으로 시작한다:

O gracious God! how far have we  
 Profan'd thy heav'nly gift of poesy!  
 Made prostitute and profligate the Muse,  
 Debas'd to each obscene and impious use,  
 Whose harmony was first ordain'd above

23) Hoffman, p. 104에서 Hoffman 은 이 "Return"의 뜻을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필자는 그와 의견을 달리함.

24) Martin Price, ed., *The Restoration and the Eighteenth Century*, The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p. 97, footnote 참조.

For tongues of angels, and for hymns of love!

O wretched we! why were we hurried down

This lubric and adult'rate age.

(Nay, added fat pollutions of our own,)

T'increase the steaming ordures of the stage?

What can we say t'excuse our *second fall*? (56-66)

여기에서 종교적·도덕적 개념과 예술적 그것이 완전히 융합되어 버렸다. 즉 본의인 예술과 전달체인 종교의 구별이 없어지고 오히려 종교가 의미의 주체로 뒤바뀌고 있다. 예술은 종교를 위한, 즉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예술이 이러한 목적을 이탈하여 인간의 관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때 그것은 아무리 기교가 우수할 예술이라도 죄스러운 것이 되고 질이 저악한 예술이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신고전주의에서 중시하는 예술의 기술·기교적인 면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수련과 기술이 부족한 시인이라도 그의 시의 종교적 도덕성이 고상하다면 극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Anne의 예술은 기술면으로 볼 때 대단치 않더라도 그녀의 마음의 순결함 때문에 인류의 속죄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미지로까지 떠받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이다:

Let this thy *vestal*, Heav'n, atone for all:

Her Arethusian stream remains unsoil'd,

Unmix'd with foreign filth, and undefiled;

Her wit was more than man, her innocense a child! (67-70)

여기에 암시된 종교는 매우 기독교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절적으로 그러한 것은 아니다. 타락된 예술이 모독한 것은 기독교적인 성신(Holy Spirit)이 아니고 고전적인 시신(Muse)이고, Anne은 Vesta 신을 모시는 성처녀이며, 그녀의 순결성은 고전적인 Arethusia의 시냇물로, 즉 이교적인 신화의 소재로 표현되고 있다. 이 이교적인 고전적인 이미지가 예술을 상징하고 있고 이 송가 전체의 종교는 진정한 기독교적 종교가 아니라 예술에 대한 비유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Anne은 어디까지나 예술이라는 종교의 대속자이지, 진정한 구세주는 아닌 것이다. Dryden은 이 종교가 비유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의 염려없이 Anne을 신성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제 4연의 마지막 행의 역설("Her wit was more than man, her innocense a child!")은 다음 제 5연에서 Anne의 시에 대한 논평과 칭찬의 준비로 되어 있다.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제 4연의 시작 부분에서 Dryden은 *natural art*라는 역설적인 개념으로써, Oldham에 대한 칭찬 때와 마찬가지로 Anne의 시의 미숙함을 칭송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그녀의 순결성, 순진성에 대한 찬양과는 달리 매우 아이러니한 것이고 Dryden의 양심상 그렇게 밖에는 칭찬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녀의 시에 대해서도 그 기술, 또는 예술성(art)으로부터 곧 화제를 돌리고, 그녀의 작품에 담긴 도덕성에 언급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찬사를 보내는 것이다:



Her morals too were in her bosom bred,  
 By great examples daily fed,  
 What in the best of books, her father's life, she read.  
 And to be read herself she need not fear;  
 Each test, and ev'ry light, her Muse will bear,  
 Tho' Epictetus with his lamp were there. (77-82)

여기서, Anne의 가슴 속에 매일 훌륭한 도덕을 심어 준 것은 아버지의 생활이라는 훌륭한 책이라고,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비유 때문에 여기서 칭찬되고 있는 도덕이 Anne의 생활의 그것인지, 작품의 그것인지, 분명치 않게 하고 있다. 이것은 그녀의 생활과 예술은 서로 떼어 낼 수 없고, 그녀의 생활의 도덕성이 곧 예술의 그것이라는 말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Anne의 작품을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녀의 생활을 통하여 칭찬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6연과 7연에서는 Anne의 그림 솜씨에 대한 칭찬을 전개하고 있으나, 6연에서의 칭찬의 근거는 주로 그림의 소재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What nature, art, bold fiction, e'er durst frame,  
 Her forming hand gave feature to the name.  
 So strange a concourse ne'er was seen before  
 But when the peopled ark the whole creation bore. (123-26)

그리고, "Oft the happy draft surpassed the image in her mind." (107행)와 같은 칭찬은 그녀의 그림 솜씨가 수련과 연마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운수 좋은 우연에 의한 것이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어서, 그리 대단한 칭찬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Oldham이나 Anne이 시에 관한 칭찬과 비슷한 데가 있다. 제 7연의 칭찬도 마찬가지다. 여기에서 Anne이 그린 국왕과 왕비의 초상화를 찬양하는 것 같은데 A.D. Hope가 말하는 것처럼, 그 칭찬은 매우 애매하다:

It is no compliment to a really competent artist to tell him that he has the shape right in portrait, that the face is recognizable and that he has made no mistake in the portrayal of the costume. To regard this as praise is to imply that the painter is an amateur or a tyro<sup>25)</sup>.

제 7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림에 관한 칭찬이 끝난 후, 모든 방면에 확대해 가는 Anne의 재능에 언급한 귀절이 있다:

Thus nothing to her *genius* was denied,  
 But like a ball of fire the further thrown,  
 Still with a greater blaze she shown,  
 And her bright soul broke out on ev'ry side.  
 What next she had design'd, Heaven only knows;

25) Hope, pp. 110-11.

To such immod'rate growth her conquest rose  
That fate alone its progress could oppose. (142-43)

여기에서 Anne의 천재는 찬란하지만 생명이 짧은 불꽃 놀이의 불에 비유되어 있고, 그 천재가 너무 많은 영역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운명의 저지를 받았다고 한탄하고 있다. 이런 말은 물론 칭찬으로 들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Anne의 제한된 재능을 너무 지나치게 확산시켰다는 아쉬움으로도 들을 수도 있다. 이 7연의 시작 부분에서 사용된 정치적 비유는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Dryden이 자주 사용한 종류의 것이지만, Anne이 미술의 영역까지 재능을 확대한 일을, 프랑스 왕이 영토를 무리하게 확장한 것에 비한다는 것은 별로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것인데, 마지막에서도 그 비유("conquest")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제 8연에서는 주로 Anne에 죽음을 갖다 준 운명에 대한 원망과 질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Anne에 대한 찬양의 말은 별로 안 보인다. 있다면 그녀의 육신의 아름다움이 강조되고 있는 점이다:

Now all those charms, that blooming grace,  
The well-proportion'd shape, and beauteous face,  
Shall never more be seen by mortal eyes: (149-51)

물론 Anne의 육신의 아름다움은 이 송가의 처음부터 다루어져 오기는 했다<sup>26)</sup>. 그러나 예술적 재능이나 도덕적 순결성 처럼 전체적인 소재는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육신은 일시적인 현세의 것이고, 최후의 심판 때까지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이며, 천국에 올라가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제 8연에서는 그녀의 육신을 땅에 묻고 제 9연에서 그녀의 영혼이 복두칠성 중의 한 별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송가가 시작할 때의 Anne의 상태로 되돌아 가는 것이다.

이 송가의 첫머리로부터 시작했던 종교적 이미지는 제 4연에서 한 절정을 이루고 차츰 약화되다가 마지막 제 10연에서 화려하고 장엄한 종말을 장식한다:

When in mid-air the golden trump shall sound,  
To raise the nations under ground;  
When in the Valley of Jehosaphat  
The judging God shall close the book of fate,  
And there the last assizes keep  
For those who wake and those who sleep;  
When rattling bones together fly  
From the four corners of the sky;  
When sinews o'er the skeletons are spread,  
Those cloth'd with flesh, and life inspires the dead;

26) 가령 36-7행 및 135행 참조.

Nor can thy soul a fairer mansion find  
Than was the beauteous frame she left behind; (36-7)  
Beauty alone could beauty take so right: (135)

The sacred poets first shall hear the sound,  
 And foremost from the tomb shall bound,  
 For they are cover'd with the lightest ground;  
 And straight, with inborn vigor, on the wing,  
 Like mounting larks, to the new morning sing.  
 There thou, sweet saint, before the choir shalt go,  
 As harbinger of heav'n, the way to show,  
 The way which thou so well hast learn'd below. (178-95)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천사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자를 다 불러 모아 심판하시리라는 말세관은 물론 기독교적인 것이며, Anne도 여기서 분명히 saint라고 불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연에서는 이교적, 고전적 요소가 완전히 사라져 없어진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 기독교적 이미지는 예술에 대한 비유로 작용하기를 완전히 그치고, Anne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진정한 종교로서, 기독교적 신앙심에 호소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도 몇 가지 고전적인 요소가 깃들어 있다. 그것은 “거룩한 시인들은 가장 가벼운 흙으로 덮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무덤에서 뛰어나오리라”는 가장 중심적인 생각 속에 있는 것이다. “sit tibi terra levis”(그대를 덮은 흙, 가볍고 편할 지어다)라는 묘비는 전형적으로 고전적인 묘비이며, 시인이 거룩하다는 개념도 Hoffman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고전적인 것이다:

The idea of the sacredness of poets had a classical rather than a Christian origin. Greek drama provided the great example of the alliance of poetry and religion, and there was also the classical tradition of respect and reverence for the inspired utterances of the poet who was regarded as a seer and prophet. There was no parallel biblical conception of the sacredness of the poet, but there were, of course, poetic portions of Scripture<sup>27)</sup>.

그렇다면 Anne을 위한 송가에 나타난 종교의 개념은 정통적 기독교와 고전적·이교적 종교의 개념이 융합된 것이라 봐야 할 것이다. Dryden은 *Absalom and Achitophel*에서도 유대의 역사와 영국의 역사를 혼합하여,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3의 역사를 만들어 냈다면, 그는 이 송가에서도 그것의 목적에 알맞는 기독교도 아니고 이방종교도 아닌, 제3의 종교의 이미지를 창조해 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에 대한 비유로서 출발한 종교는 차츰 그 자체의 의미를 강화해 나가다가 마지막 연에서는 그 비유적 성격이 거의 사라지고 종교 자체의 의미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 종교는 순수한 기독교는 아니며 예술의 종교의 모습을 아직도 지니고 있다. 그 보다도 기독교인 동시에 예술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정도로 이 두 요소가 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Anne은 그녀의 기독교적 덕망과 순결성 때문에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술인이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는 것이다.

27) Hoffman, p. 121.

